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임양준*

(경기대학교 정치매체관리학과 강사)

본 연구는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국내 주요 신문의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용산참사 관련뉴스 총 659건을 대상으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도프레임의 경우 화재원인을 둘러싼 철거민 유가족과 경찰집단 간의 책임공방 프레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순보도와 진실규명 프레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과 한나라당이 높은 빈도수로 조사되었으며, 대조적으로 철거민 유가족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신문이 행위자와 프레임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철거민 유가족보다는 경찰·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신문보도는 대체적으로 경찰의 단순보도와 편파보도가 강조된 엘리트 중심적 보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문은 경찰·검찰, 행정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책임공방과 폭력난동 프레임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룸으로서 용산사태는 철거민에 의한 불법 폭력적 사태로 규정하여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관한 신문보도는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둘러싼 경찰·검찰과 철거민 양측 간의 갈등해소의 대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보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주장과 요구를 대변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당한 공권력 행위자로 비난받고 있는 경찰·검찰 측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와 정부 간의 갈등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보다는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권력집단 측 입장을 옹호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key words : 용산사태, 사회적 갈등보도, 뉴스 프레임, 공정보도, 집단적 갈등

1. 문제의 제기

사회적 갈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이며,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고 다원화될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내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나 반정부 시위로 대표될 수 있는 종래의 갈등들이 사회정의 구현을 지향했다면, 의료분쟁이나 금융과업, 농민시위, 지역 개발을 둘러싼 주민과 행정당국의 대립 등 최근의 사회갈등은 주로 이익집단의 이익과 시민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경향이 있다(Ingalsbee, 1993; Touraine, 1988; 양정혜, 2003). 따라서 종전의 갈등이 주로 계급관계의 축을 따라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다면 최근의 갈등들은 다양한 사회관계의 축을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참여자나 참여 동기, 쟁점 등 많은 면에서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언론의 객관적인 보도는 중요하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상호갈등 집단에 대한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언론보도는 사회갈등에 대한 핵심 이슈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은 갈등 이슈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도록 다양한 쟁점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하여 언론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보도는 뉴스 소재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김동규(2000)는 사회적 갈등보도에서의 언론이 복잡한 갈등이슈를 단순화해서 보도함으로써 개별 사건 중심의 보도, 즉 이벤트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은 사회적 갈등을 과장되고 선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신문은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 상황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텔레비전은 보도영상과 보도언어를 통해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언론은 갈등상황을 지나치게 비판적,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송종길 · 이동훈, 2003). 아카바와 그의 동료들(Akiba, Adoni, & Bantz, 1990)은 미국 텔레비전 뉴스의 갈등보도 분석을 통해 복잡성(complexity), 강도(intensity), 그리고 문제 해결성(solvability)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추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보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최근 발생한 용산참사는 두 갈등 당사자 간의 특성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사회갈등 현안이다.¹⁾ 즉 용산참사는 사회의 약자 계층인 도시 철거

1) 용산참사는 기존의 사회갈등과는 달리 갈등 당사자, 갈등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 면에서 기존의 사회갈등 연구와는 달리 매우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용산참사의 갈등 주체는 기존의 사회갈등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회이익 집단 간의 갈등상황이 아닌 국가권력기관인 경찰과 철거민 세입자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사건이다. 둘째,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주거환경개선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산구청, 재개발조합, 폭력조직, 재벌건설사, 서울시 등 다양한 조직들 간에 정치 · 경제 · 사회적 으로 매우 복잡한 이권이 개입되어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건이다. 셋째, 용산사태는 진압과정에서 경찰특공대의 과격화 진압으로 6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회적 참사이다. 넷째, 다수의 사상자에 대한 경찰 측

민과 정부 공권력 집행기관인 경찰 간의 물리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회 갈등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사회적 약자인 도시철거민과 국가기관인 경찰 간의 갈등과 마찰이 심한 만큼 언론이 각 입장을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여 보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을 포함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주체로서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이 갈등 보도를 통해 정부나 국가 중심의 주제만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Gitlin, 1980).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의 언론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계 인사들의 소위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인 KBS·EBS·YTN 방송사, MBC PD수첩 수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그리고 방문진과 갈등으로 인한 MBC 사장 사퇴 등 현 정부의 언론간섭과 통제에 의한 언론사들의 친정부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최근 신문을 포함한 언론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신문이 뉴스보도를 통하여 용산참사의 갈등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적 분석인 프레임 분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던 용산참사에 대하여 뉴스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일간지들이 용산참사의 갈등 주체이며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과 엘리트집단인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용산참사의 이슈에 대한 이해의 틀을 어떻게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용산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적 이슈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비슷한 갈등이슈에 대한 올바른 보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뉴스 프레임

뉴스 프레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다. 뉴스 프레임 개념을 초기에 정의한 고프만(Goffmann, 1974)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건들 혹은 생활 경험들을 위치지우고, 지각하고, 파악하고 또한 명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해석기제라고 정의하였다. 강내원(2002)은 프레임이

책임에 대하여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늦장, 부실, 편파수사 등 수사주체와 수사대상자 간의 불공정 수사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건이다.

2) 최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참여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61.9%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낙하산 인사 등을 앞세운 정치권력이라고 답변하였다(이정환, 2010).

란 중심이 되는 주제(central theme)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이슈의 어떠한 측면(aspect)이 강조되는가에 초점을 두는가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갠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이며, 이들은 프레임이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심적 견해라고 정의하였다. 후자의 경우, 프레임의 속성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프레임은 특정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며,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제시하였다(Entman, 1993).

이러한 뉴스프레임은 뉴스 내러티브에서 강조된 키워드, 메타포, 콘셉트, 심벌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구체화된다(엔트만, 1993). 특정한 미디어 프레임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화관련성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강화함으로써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기본적인 해석을 보다 쉽게 식별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양문석, 2002).

프레임의 개념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선택과 현저성이다. 기틀린(Gitlin, 1989)은 프레임이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형성되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담론이 구성된다고 한 것과 같이 미디어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 측면만을 부각시키거나 특정 사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한다(정재철, 2001). 즉 이는 언론이 선택과 배제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 내는 것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이슈의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특정 정보를 더 알기 쉽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선택(selection)은 현저성(salience)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프레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조유미, 2007). 따라서 뉴스의 프레임은 수용자의 해석과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언론이 프레임링 과정을 통해 특정 측면을 선택, 부각하고 다른 측면은 배제, 왜곡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그리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로서 수용자의 인식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양문석, 2002).

프레임 연구의 유형으로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에 대하여 아이엔가(Iyengar, 1992)는 프레임을 에피소드식 프레임과 주제식(thematic) 프레임으로 구별했다. 에피소드식 프레임은 사회문제를 개인이나 사건 중심으로 보며 피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시켜 문제의 책임소재를 지도자나 특정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분석적, 맥락적,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돌리는 수용자 효과를 지닌다. 아이엔가의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피소드식 프레임에 노출된 피실험자는 사회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반면 주제 진술식 프레임에 접한 피실험자는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사회구조적인 용인에 정책의 성패에 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미디어 프레임 연구는 저널리즘 제도, 관행, 행위, 규범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거나 차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이준웅, 2009).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프레임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틀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이준웅, 2009). 무엇보다 미디어 프레임 연구에서 프레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에

매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레임 연구에서 프레임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프레임 연구는 특히 사회갈등 상황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갈등 문제의 언론보도 프레임에 대한 다양한 기존연구들은 갈등상황에 대한 뉴스를 특정한 프레임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박경숙, 2002; 양정혜, 2001; 김선남, 2002; 김훈순, 1998; 박선희, 2001). 기존연구를 통해 나타난 갈등보도의 프레임의 속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이루어진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나, 미디어는 갈등의 사안들을 모두 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고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해석적인 재현을 하였다. 즉 부정성과 일탈행위가 강조되었고 체제 지향적 가치와 사회규범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 사건 중심적인 보도형태와 국한된 이해당사자들만이 뉴스 프레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프레임이 뉴스 제작관행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근간한 해석적인 프레임이 나타났다. 특히 갈등적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가치와 규범에 있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프레임에서 차이를 보이는 연구들은 파울러(Fowler, 1991)가 언급했던 미디어 담론 차원의 사회적 재현이 언어를 토대로 한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 특성

갈등이란 행위주체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갈등은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생산적이라는 관점도 있다(이영표, 2007). 따라서 사회적 갈등은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고 다원화될수록 그 모습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정치적 영역을 포함해 노동, 여성, 환경, 지역, 소비자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상황에 있어서 언론은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수용자에게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갈등당사자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여론화시키는 창구로, 또한 일반수용자들에게는 갈등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언론은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공공의제로 만들어서 공중에 어떤 쟁점들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결과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는 등 갈등사안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같은 이슈라 할

3) 이준웅(2009)은 이론적 메커니즘의 불합치성으로 인하여 프레임 연구에서 틀릿기 효과가 효과과정의 뉴스 이용자의 해석에 대한 효과, 학습 효과, 주목에 대한 효과, 정서적 반응에 대한 효과, 신념에 미치는 효과 판단전략에 대한 효과 그리고 위의 효과를 포괄하는 효과 과정 전반 등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라도 뉴스 프레임에 따라 그 관점과 논리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함의가 차별성을 지니게 되며, 그에 따라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도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갈등당사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거나 정치적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양정혜,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단순한 집단 간의 갈등 양상만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김동규(2000)는 언론의 갈등보도에 대한 특징으로, ① 단순화와 사건중심 보도, ② 물리력 중심의 확대과장 보도, 그리고 ③ 극단성 강조 보도 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원용·이동훈(2005)은 갈등상황에서 언론보도는 ① 주체의 행위관계 중심, ② 부정성, 일탈성 강조, ③ 체제 지향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 등의 보도프레임이 주류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는 많은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겉으로 드러난 두 집단만의 갈등을 그려내는 전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동규, 2000). 즉 사회적 갈등에는 이슈의 배경과 속성, 사회적 맥락, 관련 집단들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복합적인 사회맥락을 간과하거나 단순하게 보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보도의 강도는 대립상황에 대한 보도가 물리적 충돌, 감정적 언어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슈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문제 해결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규, 2000).

최근 국내외 사회적 갈등 관련연구 역시 이러한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테크먼(Tuchman, 1978)은 언론이 사회적 갈등사태를 보도할 때,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즉 언론이 갈등의 소강상태에서는 보도비율을 낮추고,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전체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슈미트(Schmidt, 1993)는 미국의 노동조합과 파업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다른 부분보다 파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미디어는 파업의 빈도를 과장하는데, 이러한 과장은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송정민(1992)은 우리나라 언론의 노사관련 뉴스보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노동자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위주로 한 보도로서 노동자는 사회의 질서나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묘사, 둘째,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억지인 것으로 보도하거나, 제반행위를 문제집단의 행위로 보도하는 관행, 셋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파악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요구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 넷째, 노동자는 민주적인 원칙인 대화나 타협을 부정한다는 식의 보도, 다섯째 노동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강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은 프레임링을 통해 갈등상황을 일정한 방향으로 의미화시키고 있었는데 평범화, 양극화, 주변화, 문제를 제기한 집단의부정적인 모습과 불화를 강조하고 있었고, 일탈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보다 진행 시에 나타나는 일화적인 극적인 특

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Gitlin, 1980). 이러한 프레임은 실제적인 의미를 왜곡시키고 갈등현실에 대한 허위적인 생각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다.

갈등적 이슈에 대해 언론이 사실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입장을 달리한다면, 즉 뉴스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게 되면, 뉴스 수용자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이준웅, 2002). 이런 관점에서 용산참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 내 집단들의 갈등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어떤 집단을 그리고 어떤 갈등이슈를 중심화시켜, 갈등의 본질과 문제 해결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사회갈등의 틀 짓기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사안인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분석함으로써, 동일문제에 대한 언론사들의 각기 다른 보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문지면을 통해 사용된 뉴스프레임을 파악함과 동시에, 뉴스보도를 통해 인용된 주요행위자들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논의 되었던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장들을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해 뉴스보도를 통해 강조되고 부각된 주요프레임과 주요행위자 그리고 언론사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용산참사와 관련된 신문보도에서 사용된 뉴스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연구문제 2 : 용산참사와 관련된 뉴스보도에서 이해집단인 주요행위자들은 어떻게 틀 지워졌는가?
- 연구문제 3 : 용산참사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은 신문사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등 세 개 일간신문을 대상으

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보수와 진보로서 두 신문 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실천양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김영기, 2002; 양정혜, 2001; 한동섭, 2000). 그리고 『한국일보』를 선정한 이유는 신문 사별 정치 지향성 분포 표에서 『한국일보』가 보수나 진보가 아닌 비교적 중간 정도의 이념적 성격의 신문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⁴⁾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는 뚜렷한 이념적 논조가 없는 신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김정현, 2001).

분석기간을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선정한 이유는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사건전반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문을 포함한 언론의 망루의 화재발생 원인,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등 철거민 유족 측과 경찰·검찰 측간의 대립과 공방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는 한국언론재단의 검색사이트인 카인즈를 통해 ‘용산참사’, ‘용산사태’, ‘용산’ 등의 키워드로 해당 자료를 검색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대상 기사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된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가 354건(53.7%), 『한겨레신문』이 183건(27.8%), 그리고 『한국일보』가 122건(18.5%)으로 총 659건이었다.

(2) 뉴스 프레임 분석방법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뉴스를 구성하는 뉴스프레임은 에피소드식 프레임과 주제 진술식 프레임 측면으로 구분하였다(Iyengar & Simon, 1993). 에피소드식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공적 이슈를 틀 짓는 보도방식인 반면, 주제 진술식 프레임은 사회구조와 역사적 배경 등 추상적인 상황에 이슈를 위치지우는 보도의 틀이다(김선남, 2002). 에피소드식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를 현장의 인터뷰를 통하여 극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묘사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만, 주제 진술식 프레임은 공공이슈를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틀로서 보다 해석적이고 평가적 심층 분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김훈순(1998)과 양정혜(2001)는 아이엔가와 시몬의 분류를 사건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재분류하여 사건중심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주제중심 프레임은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 구성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의 형식적인 프레임 분석을 위해 김훈순(1998) 등이 활용한 분석틀을 인용하였다. 즉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형식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용산참사가 발생

4) 정연정·김유근(2004)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개 대표적 일간지에 실린 칼럼의 논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문의 정치적 이념 지향성을 측정할 결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가장 보수적 일간지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가장 진보적 신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정치적인 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이념 지향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게 된 서울시의 도시 재개발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재건축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대한 행정제도와 개선방향 등 원인진단 및 대안제공이 포함된 기사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보도형식이 용산참사와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한 단순한 보고, 참사발생 과정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설명, 그리고 실태에 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는 기사의 경우는 사건중심 프레임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주제+사건 중심적 프레임으로는 주제 중심 혹은 사건 중심 유형의 어느 한쪽으로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된 경우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경우, 사건, 주제 또는 사건+주제 중심프레임이 나타나지 않거나 관련사항이 없는 보도기사이다.

용산참사와 관련된 프레임 분석은 프레임 속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맥락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귀납적 방법이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엔트만(Entman, 1993)과 갠슨(Gamson, 1992)의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뉴스텍스트에서 선택되고 강조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반복되어지고 유사한 형태로 묶어지는 핵심주제어들을 통합시켜서 프레임을 추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659개 보도기사 가운데 11개의 뉴스프레임이 유형화되었다. 이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8개의 프레임 유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각 프레임과 신문사별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명의 코더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산출되었다.

4. 연구결과

1) 일간신문에 나타난 뉴스프레임 특성

(1) 형식적인 면에서의 프레임 유형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를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일화 중심적 프레임(74.2%)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제 중심적 프레임(15.6%), 그리고 일화+주제 중심적 프레임(4.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신문사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다른 비교대상 신문과는 달리 주제 중심적 비율(43.7%)이 일화 중심적 비율(39.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주제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으로 경찰의 책임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문제,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 통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경제적·사회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다각적

〈표 1〉 용산참사 보도에 대한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

프레임 유형 \ 신문 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합계
일화중심	323(91.2)	72(39.3)	94(77.0)	489(74.2)
주제중심	11(3.1)	80(43.7)	12(9.8)	103(15.6)
일화+주제	5(1.4)	13(7.1)	14(11.5)	32(4.9)
기타	15(4.2)	18(9.8)	2(1.6)	35(5.3)
합계	354(53.3)	183(27.8)	122(18.5)	659(100.0)

$\chi^2 = 206.92, df = 6, p < .05$

인 측면에서 사실과 칼럼, 그리고 기획보도를 통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제시가 보도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경우,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각각 91.2%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용산사태와 관련하여 사건이나 사고발생 등 주로 사회적 논란을 철거민 개인이나 집단문제로 묘사하거나, 또는 결과로서 드러나 사건에 초점들 맞추어 보도했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철거민의 불법폭력 시위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배후조정 등 철거민 시위대의 폭력적 성격과 활동을 묘사하는 등 주로 가시적인 사건에만 주된 관심을 할애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관점에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보도는 최소화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는 사고발생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배경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객관적인 분석과 심층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유형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 내용 중 가장 높은 프레임 보도건수를 차지한 분야는 화재원인 귀인에 대한 경찰과 철거민 간의 책임공방 프레임(18.8%)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찰·검찰 측 의견과 주장에 대한 단순전달 프레임(14.3%),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결과에 따른 진실 규명 프레임(9.1%)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폭력난동 프레임(5.9%), 제도개선 프레임(6.5%), 그리고 편파보도 프레임(8.8%)은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따라서 신문보도에 나타난 전체적인 뉴스프레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 책임공방 프레임은 용산참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경찰 측과 철거민 유가족 간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둔 보도이다. 책임공방 프레임은 용산참사 보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경찰과 철거민 유족들과 간이 화염병과 시너 사용 논란,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그리고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불법행위 등

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둘째, 폭력난동 강조 프레임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 유가족 그리고 시위대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에서 발생한 프레임으로 불법적, 일탈성 행동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이다(김원용 · 김동훈, 2005). 폭력난동 프레임의 경우, 철거민에 의한 화염병 투척 폭력시위, 농성장의 경찰특공대와 철거민간의 폭력적 충돌, 도심 추모집회에서 시위자와 경찰 간의 충돌 등에 대한 내용이 폭력난동 프레임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셋째, 갈등대치 강조 프레임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김원용 · 김동훈, 2005). 갈등대치 프레임의 경우, 즉 언론보도가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 규탄집회, 진상규명 촛불집회, 종교계의 시국미사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모행사와 관련된 메시지 등을 담고 있으면 갈등대치 강조 프레임으로 판정하였다.

넷째, 정치적 성향은 용산참사에 대한 사안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문제로 해석하여 처리하거나 해결하려는 프레임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은 갈등 당사자인 철거민과 유가족, 일반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배제한 반면, 정부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등 용산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당간의 주장과 의견만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이다. 정치적 성향 프레임의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논쟁, 국정조사 주장에 대한 여야 대립, 그리고 2009년 2월 임시국회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 보도이다.

다섯째, 단순내용 전달 프레임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갈등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측의 발표를 사실 검증이나 심층보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여 보도하는 경우이다. 특히 용산참사에 대한 단순보도 프레임은 주로 경찰의 철거민 진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장과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형태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은 신문이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대한 의

〈표 2〉 신문사별 프레임 비교 (단위: 빈도, %)

프레임 유형 \ 신문 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합계
책임공방	45(12.7)	49(26.8)	30(24.6)	124(18.8)
폭력난동	27(7.6)	6(3.3)	6(4.9)	39(5.9)
갈등대치	28(7.9)	10(5.5)	8(6.6)	46(7.0)
정치적 성향	32(9.0)	12(6.6)	15(12.3)	59(9.0)
단순전달	83(23.4)	4(2.2)	7(5.7)	94(14.3)
진실규명	26(4.5)	29(15.8)	15(12.3)	60(9.1)
편파보도	57(16.1)	0(0)	1(.8)	58(8.8)
제도개선	0(0)	30(16.4)	13(10.7)	43(6.5)
기타	66(18.6)	43(23.5)	27(22.1)	136(20.6)
합계	357(53.7)	183(27.8)	122(18.5)	659(100.0)

$\chi^2 = 189.25, df = 16, p < .05$

혹이나 문제점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보도내용이다. 특히 진실규명 프레임은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규명 프레임은 경찰의 철거민 진압과 관련하여 경찰 측 책임과, 그리고 경찰 지도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편파보도 프레임의 경우, 화재 발화원인이나 경찰의 과잉진압 작전, 그리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하여 주로 갈등 당사자인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과 주장만을 강조하여 전달 보도하는 경우이다. 편파보도 프레임은 진압 경찰이 주장한 과잉진압의 정당성만을 적극 옹호하는 반면, 철거민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또는 간단히 단순 처리하여 보도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편파보도 프레임은 용산참사에 대하여 청와대, 한나라당, 경찰·검찰 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합리화하는 기사로써, 주로 『조선일보』에 자주 보도된 뉴스프레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프레임은 용산참사의 근본요소로써 도시재개발에 따른 건설사-재개발조합-세입자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언론뉴스 프레임을 의미한다. 즉 뉴스보도가 재개발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책이나 개선안, 또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재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행정적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경우에 제도개선 프레임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제도개선 프레임에 대한 보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문기사의 주요행위자 분석

언론이 특정의 사회 갈등적 이슈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이슈와 관련된 여러 주요 행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계층이나 집단이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갈등요소 보도에 공정성과 균형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요행위자는 양질(良質) 기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이건호, 2008). 따라서 용산참사 관련 뉴스보도에 나타난 주요행위자들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는 뉴스보도에서 기자들이 인용한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용산사태 이슈가 주로 누구의 입장과 시각을 통해 틀지어졌는지 살펴보았다.

(1) 주요행위자 등장 빈도수

분석대상 신문 모두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32.0%)이 가장 높게 등장하였다. 이어 서·야 정당인 한나라당(12.8%),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거민 유가족(9.7%), 시민단체(7.4%), 일반시민(5.0%) 그리고 전문가 집단(2.7%)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신문사별로 주요행위자별 등장 빈도수를 살펴보면, 특히 『조선일보』는 경찰·검찰(40.4%)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한나라당(15.4%), 그리고 야당(9.9%)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검찰(17.3%), 철거민 유가족(15.1%), 그리고 시민단체(13.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한국일보』는 경찰·검찰(27.5%)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야당(16.5%) 그리고 철거민 유가족(10.1%)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사회적 갈등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엘리트인 권력집단과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강내원, 2000). 사회 엘리트집단이 갈등문제의 주요행위자로서 자주 등장한 이유는 이들 권력집단이나 정부기관이 이미 사회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관리나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갈등문제에 대한 정보관리나 언론홍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언론사나 신문기자 입장에서 이들 엘리트집단을 상대로 한 취재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갈등문제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자체의 비중이나 이슈보다는 취재보도의 편의와 갈등당사자의 정보관리 능력이 뉴스의 선택과 배제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김동규, 2000).

그러나 언론이 용산참사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갈등사안을 사회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밝혀내기보다는 경찰·검찰 집단의 주장만을 반복 보도한다면 독자는 용산사태를 사회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철거민집단의 한정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 갈등주체 당사자로서 경찰·검찰(32.0%)의 주장이 전체보도의 3분의1 을 차지한 반면, 철거민 유가족(9.7%)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빈도로 보도된 것은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한적이며 단순 보도를 의미한다.

〈표 3〉 신문사별 주요행위자* (단위: 빈도: %)

주요 행위자	신문 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합계
행정부		21(5.5)	18(9.7)	8(7.3)	47(6.9)
경찰·검찰		155(40.4)	32(17.3)	30(27.5)	217(32.0)
한나라당(여당)		59(15.4)	18(9.7)	10(9.2)	87(12.8)
국회의원(야당)		38(9.9)	20(10.8)	18(16.5)	86(12.7)
철거민·유가족		27(7.0)	28(15.1)	11(10.1)	66(9.7)
시민단체		32(8.3)	24(13.0)	2(1.8)	50(7.4)
전문가 그룹		5(1.5)	9(4.9)	4(3.7)	18(2.7)
일반시민		22(5.7)	9(4.9)	3(2.8)	34(5.0)
기타		25(6.5)	27(14.6)	23(21.1)	75(11.1)
합계		384(56.6)	185(27.3)	109(16.1)	678(100.0)

주: 주요 행위자 중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관계자 등을 의미하며, 경찰·검찰은 경찰 특공대 및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의미한다. 민주당 외 야당은 민주노동당, 선진자유당, 창조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철거민 유가족은 용산참사에서 부상 당한 철거민과 사망 유가족을 포함하며, 시민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 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은 소방전문가, 주거전문가 그리고 교수와 연구원 등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단인 변호사를 포함하며, 기타는 전철연, 시위대, 보수단체, 세입자, 외신, 기자, 국과수 등을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단순화는 곧 개별사건 중심의 보도를 낳게 되는데, 다양한 여러 집단의 여론을 반영한 설명이 없는 보도는 일부집단 간의 문제로 표상하기 쉽다(이준웅, 2001).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생존권 차원의 철거민 토지 보상법과 주거이전비의 현실화 등 도시 재개발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등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주장일 뿐이며, 이들은 주변적인 그룹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집단인 경찰·검찰의 보도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는 신문이 사회적 갈등이슈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책들이 교환되는 논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언로(言路)가 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나 권력집단의 주장과 입장만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옹호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먼저 각 프레임별로 행위자의 주요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책임공방 프레임의 경우, 경찰·검찰(46건)이 가장 높았으며, 야당(21건), 그리고 한나라당(61건) 순이었다. 단순전달 프레임으로 경찰·검찰(70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대치 프레임은 시민단체(27건)가 높았고, 경찰·검찰과 철거민 유가족(7건)은 같은 비율로 보도되었다.

〈표 4〉 주요행위자의 프레임 분석 (단위: 빈도, %)

프레임 유형 주요행위자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정치적 성향	단순 전달	진실 규명	편파 보도	제도 개선	기타	합계
행정부	7 (4.9)	2 (4.5)	1 (1.7)	8 (14.0)	6 (6.4)	3 (5.5)	4 (6.9)	3 (8.1)	13 (10.1)	47 (6.9)
경찰·검찰	46 (31.9)	15 (34.1)	7 (11.7)	2 (3.5)	70 (74.5)	17 (30.9)	28 (48.3)		32 (24.8)	217 (32.0)
한나라당(여당)	16 (11.1)	3 (6.8)	1 (1.7)	29 (50.9)	5 (5.3)	1 (1.8)	11 (19.0)	5 (13.5)	16 (12.4)	87 (12.8)
국회의원(야당)	21 (14.6)	1 (2.3)	9 (15.0)	10 (17.5)	6 (6.4)	11 (20.0)	5 (8.6)	4 (10.8)	9 (7.0)	76 (11.2)
철거민·유가족	13 (9.0)	9 (20.5)	7 (11.7)		3 (3.2)	4 (7.3)	3 (5.2)	5 (13.5)	22 (17.1)	66 (9.7)
시민단체	15 (10.4)	1 (2.3)	27 (45.0)		1 (1.1)	8 (14.5)		4 (10.8)	2 (1.6)	58 (8.6)
전문가 그룹	4 (2.8)	1 (2.3)	1 (1.7)			4 (7.3)	1 (1.7)	1 (2.7)	6 (4.7)	18 (2.7)
일반시민	8 (5.6)	7 (15.9)	3 (5.0)		2 (2.1)	1 (1.8)	2 (3.4)	3 (8.1)	8 (6.2)	34 (5.0)
기타	14 (9.7)	5 (11.4)	4 (6.7)	8 (14.0)	1 (1.1)	6 (10.9)	4 (6.9)	12 (32.4)	21 (16.3)	75 (11.1)
합계	144 (21.2)	44 (6.5)	60 (8.8)	57 (8.4)	94 (13.9)	55 (8.1)	55 (8.6)	37 (5.5)	129 (19.0)	678 (100.0)

각 주요행위자별로 프레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검찰의 경우, 단순전달 프레임(70건)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어서 책임공방 프레임(46건), 그리고 편파보도 프레임(28건)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전달>책임공방>편파보도). 한나라당은 정치적 성향(29건), 책임공방(16건), 그리고 편파보도(11건)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치성향>책임공방>편파보도), 야당 국회의원은 책임공방(21건), 진실규명(11건), 그리고 정치적 성향(10건) 순이었다(책임공방>진실규명>정치적 성향). 또한 철거민 유가족의 경우, 책임규명(13건)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폭력난동(19건), 그리고 갈등대치(7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책임규명>폭력난동>갈등대치).

프레임별로 주요행위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책임공방과 관련하여 보도된 주요 행위자로는 주로 경찰 측과 야당 국회의원 측간의 공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난동 프레임에 주로 등장하는 행위자로는 경찰과 철거민 유가족 간, 그리고 갈등대치 프레임의 경우, 경찰·검찰, 야당, 시민단체들 간의 주요한 대립각을 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책임공방과 갈등대치 프레임을 통해 갈등 당사자인 경찰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즉 용산참사에 대한 신문보도는 사고발생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배경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객관적인 분석과 심층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등장빈도 수는 매우 높은 반면, 철거민 유가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산참사에서 철거민 유가족이 비록 직접적 갈등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문제들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사보도를 정치·경제적 그리고 조직적 이유로 배제(정의철·이창호, 2007) 되어 주요행위자로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뉴스프레임에 대한 신문사별 차이

용산참사 보도를 통해 각각의 분석대상 신문별로 프레임에 따라 어떤 행위자가 등장하여 이슈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1) 조선일보의 프레임 구성

『조선일보』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행위자는 경찰·검찰(155건)로 나타났다. 이어서 여당인 한나라당(59건)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38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갈등당사자인 경찰과 철거민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 보도비율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의 갈등이 보도의 중심이 되었던 대립프레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갈등주체인 경찰·검찰과 철거민의 경우, 『조선일보』는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155건)을 철거민(27건)보다 약 6배 많이 보도하여 경찰·검찰의 시각을 강조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

〈표 5〉 조선일보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빈도(건수))

주요행위자	프레임 유형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정치적 성향	단순 전달	진실 규명	편파 보도	제도 개선	기타	합계
행정부		1	2		1	6		4		7	21
경찰·검찰		20	12	2	2	61	9	27		22	155
한나라당(여당)		11	2	1	19	5		11		10	59
국회의원(야당)		10	1	4	2	6	5	5		5	38
철거민·유가족		5	4	5		2		3		8	27
시민단체		9	1	19		1	1			1	32
전문가 그룹		1		1				1		2	5
일반시민		4	6	3		2		2		5	22
기타		2	4	2	4	1	1	4		7	25
합계		63	32	37	28	84	16	57	0	67	384

$\chi^2 = 276.83, df = 63, p < .05$

당(59건)의 행위자 보도건수는 야당인 민주당(38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행정부, 경찰·검찰, 한나라 등 정부와 여당(235건) 측 주요행위자를 철거민·시민단체(97건)보다 네 배 이상 부각시켜 용산참사 뉴스에 대하여 주로 정부 측 의견과 시각을 강조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선일보』는 주요행위자로서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소방전문가, 국과수 관계자, 그리고 교수 등 전문가 집단(5건)에 대한 보도량 자체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화재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규명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행위자에 따른 『조선일보』의 프레임 구성을 살펴보면, 경찰·검찰의 경우 단순보도 프레임(61건)에서 주요행위자로 매우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용산참사와 관련한 주요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갈등당사자인 철거민·유가족 측의 의견과 주장(2건)보다 경찰·검찰(61건)의 시각을 더 자주 보도하여 경찰·검찰 입장이 매우 유리하게 보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검찰의 시각이 편파보도 프레임(27건)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이 과잉진압으로 인한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진압당사자로서 직접책임이 있는 경찰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보도함으로써, 경찰 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일보』의 철거민·유가족(27건)의 비율은 갈등대립 상대인 경찰·검찰(155건)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나 용산참사 보도에서 철거민의 주장은 거의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를 주로 갈등대치 프레임(19건)으로 보도하여 용산참사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주로 경찰·검찰과 싸우는 집단으로 틀어지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일보』에 나타난 주요행위자인 경찰·검찰과 철거민 유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범질서 집행의 주체로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도되었다. 특히 경찰특공대의 경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과잉진압, 안전대책미흡 그리고 불법 용역업체와의 작전 등으로 철거민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와 점거농성의 불법성, 그리고 외부불순세력 등을 부각시키며 경찰의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 정당한 진압이었다”(2009. 1. 21), “시민 위해 공권력 투입”(2009. 1. 21), 그리고 “농성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철거민들 화염병 저항”(2009. 1. 21), 그리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서울)도심 테러상황에 진압 불가피”(2009. 1. 21) 등이다.

그러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일관성 있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철거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내거는 요구⁵⁾와 명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문 시위꾼으로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의미화되고 있다. 보도 사례를 살펴보면, “화염병 때문에 발화, 특공대원 증언”(2009.1.21), “경찰, 철거민 시너 뿌리고 화염병 던지면서 불붙어”(2009. 1. 21), “검찰, 망루화염병이 참사의 원인”(2009. 1. 22) 그리고 검찰, 전철연 의장, 용산참사 개입“(2009. 1. 23) 등으로 보도되었다.

(2)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구성

『한겨레신문』에서는 경찰·검찰(32건)이 주요행위자로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철거민 유가족(28건)과 시민단체(24건)로 조사되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갈등당사자인 경찰·검찰집단과 철거민 집단 간의 주요행위자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18건)과 야당인 민주당(20건)도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주요행위자의 보도 빈도수를 통해 용산참사에서 갈등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당·야당의 입장과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행위자에 대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17건)과 철거민 유가족(7건)의 경우, 책임공방 프레임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망사고 등 책임귀인에 대하여 경찰 측과 철거민 측간의 심각한 갈등대립과 공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행위자로서 시민단체의 보도비율(24건)이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9건)와 일반시민의 비율도 대체로 높았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용산참사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보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도개선 프레임(25건)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은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도시재개발에 따른 개발정책과 보

5)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세입자를 위한 주거 이전비와 동산 이전비의 현실화(토지보상법 규정) 등을 의미함(‘서울 시의 무분별한 재개발의 비극’, 『한겨레신문』, 2009. 1. 21, 4쪽 참고).

〈표 6〉 한겨레신문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빈도(건수))

프레임 유형 주요행위자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정치적 성향	단순 전달	진실 규명	편파 보도	제도 개선	기타	합계
행정부	5		1	5		2		1	4	18
경찰·검찰	17	1	3		3	4			4	32
한나라당(여당)	4			6				2	6	18
국회의원(야당)	2		2	4		5		4	3	20
철거민·유가족	7	3				3		4	11	28
시민단체	6		7			7		3	1	24
전문가 그룹	2	1				3			3	9
일반시민	2	1				1		3	2	9
기타	8					3		8	8	27
합계	53	6	12	15	3	28	0	25	42	185

$\chi^2 = 152.03, df = 63, p < .05$

상 문제를 법률적, 행정적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도시철거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에 나타난 주요행위자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경찰 이미지의 경우 용산참사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 집단으로서 의미화되고 있다. 즉 경찰은 진압 매뉴얼도 없이 토끼 물이식 과잉진압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비도덕적인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철거민과 경찰에 대하여 늦장·편파·왜곡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토끼물이 진압 참사 키웠다”(2009.1.21), “기동대원도 모르는 진압 매뉴얼”(2009.1.24), “경찰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 동원”(2009.1.2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편파수사에 분노폭발,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2009.1.23), “경찰은 은폐 급급, 검찰은 편파수사”(2009.1.24), 그리고 “진상조사단, 경찰과실분명, 검찰 편파수사 그만”(2009.1.28) 등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이미지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주문자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주체인 검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대응책임과 동시에, 공정하고 적극적인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 검찰 못 믿겠다, 특검요구”(2009.1.23), “민주, 용산참사 국정조사 요구”(2009.1.22), 그리고 “여야, 특검논쟁 불붙어”(2009.2.9)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철거민유가족의 이미지는 도시 재개발의 직접적인 희생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즉 『한겨레신문』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합법적인 휴업 보상금과 주거 이전비 등 보상금 혜택도 받지 못하여 농성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도 못 받았다”(2009. 1. 22), “서민 내쫓는 도시정비사업”(2009. 1. 22), 그리고 “용산 재개발, 조합원당 5억4천만 원 개발이의 책거, 상가세입자엔 2500만 원”(2009. 1. 22) 등이다.

(3) 한국일보의 프레임 구성

『한국일보』보도에서는 경찰·검찰과 철거민 유가족이 주요행위자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보도의 중심이 되었던 대립프레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경우, 경찰·검찰(30건)의 행위자가 철거민 유가족(11건)보다 더 많이 보도되어 주로 경찰·검찰 주장과 의견이 더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일보』는 갈등당사자를 제외한 주요행위자인 시민단체(2건), 일반시민(3건), 그리고 전문가(4건) 등으로 보도건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용산참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일보』의 책임공방 프레임의 경우, 철거민 유가족(1건)의 보도비율보다 경찰·검찰(9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산참사의 주요논란인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원인으로 인한 책임공방에 대하여 경찰·검찰 측의 입장을 더 자주 보도함으로써 철거민 유가족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용산참사의 수사주체인 경찰·검찰에 대한 보도내용도 단순전달 프레임(7건)보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일보』가 경찰의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용역직원은 없었다는 주장,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검찰의 전철련 배후설 보도, 그리고 망루 안에서 철거민이 뿌린 액체는 시너지며 이는 경찰특공대원도 시너냄새를 맡았다는 발언 등을 바탕으로, 화재원인에 대한 철거민 측 책임론을 주장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수사보도에 대하여 문제제기나 사실규명 없이 간단하게 처리하여 단순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한국일보』는 한나라당의 경우 용산참사 문제를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여론을 살피면서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려는 정치성향 프레임으로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문제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 등 보다 근본적인 책임귀인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철거민 유가족에 대하여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심에서의 화염병 시위, 경찰버스 방화 등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와 진압경찰 규탄 등에 대한 촛불시위 갈등대치의 이미지로 묘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의 경찰·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한겨레신문』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경찰의 경우 강경하고 무모한 진압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부도적인 집단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경우, 편파수사에 대한 원인제공자로 부각됨과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도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경찰, 말보다 발 먼저”(2009. 1. 20), “용산 철거민 흉악범도 아닌데... 시민들 강경진압 비난여론”(2009. 1. 20), 그리고 “무모한 진압이 용산참사 불렀다”(2009. 1. 20) 등이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 “검찰-철거민, 편파수사 공방가열”(2009. 1. 28) 그리고 “편파수사 논란 막아라, 검찰의 묘

〈표 7〉 한국일보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빈도(건수))

주요행위자	프레임 유형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정치적 성향	단순 전달	진실 규명	편파 보도	제도 개선	기타	합계
행정부		1			2		1		2	2	8
경찰·검찰		9	2	2		6	4	1		6	30
한나라당(여당)		1	1		4		1		3		10
국회의원(야당)		9		3	4		1			1	18
철거민·유가족		1	2	2		1	1		1	3	11
시민단체				1					1		2
전문가 그룹		1					1		1	1	4
일반시민		2								1	3
기타		4	1	2	4		2		4	6	23
합계		28	6	10	14	7	11	1	12	20	109

$\chi^2 = 89.00, df = 72, p < .05$

수”(2009. 2. 4) 등으로 보도되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의 이미지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자 처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특검도입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정치 행위자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석기 구속 수사를, 몰아치는 민주당”(2009. 1. 23), “야권 김석기 퇴진 공세강화”(2009. 1. 24), 그리고 “특검 불 지피는 민주당”(2009. 1. 28)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강력한 정치 주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문제점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적 해결책보다는 경찰 책임자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현실구성을 하고 있다.

철거민의 이미지는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입자 보상금에 따른 문제이며,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커녕 죄 없는 가장들이 희생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묘사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 철거민 쥐꼬리 보상금이 원인”(2009. 1. 21), “용산참사 유족들 분노, ‘까맣게 타버린 남편모습이 가슴 찢어’”(2009. 1. 21), 그리고 “70세 노인, 30년 장사한 거리서 참변”(2009. 1. 20) 등으로 보도되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신문을 포함한 언론이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 강조와 요약을 통해 사회현실을 구성하고 특정이슈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가 기관인 경찰·검찰과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에 대한 침예한 갈등이 대두되었던 용산참사에 대한 이슈를 신문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산참사와 관련한 뉴스보도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91.2%)와 『한국일보』(77.0%)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주제중심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한겨레신문』(43.7%)이 높았다. 주제+사건중심 프레임은 세 신문 모두 적게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두 신문은 일화중심 프레임의 지배로 인해 사건을 피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용산참사가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프레임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신문들이 책임공방 프레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고, 다음으로 단순보도와 진실규명 프레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과 제도개선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이 용산참사와 관련뉴스가 철거민과 경찰 간의 화재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책임공방에 따른 대립, 경찰의 강경진압과 불법용역과의 합동작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에 대한 대립구도 속에서 초당(超黨)적 협력을 통한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성보다는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에 따른 궁극적인 문제점인 세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상비와 주거이전비의 법제화 및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철거민,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문보도가 약자배려에 대한 외연적 공정성 원칙⁶⁾에도 어긋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요행위자 연구에서 분석대상 신문 모두 경찰·검찰이 주요행위자로 가장 높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철거민 유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세 개 신문 모두 용산참사의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경찰과 검찰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했다. 다만, 『한겨레신문』은 철거민과 시민단체가 주요행위자로 많이 등장한 반면, 『조선일보』는 행정부 관계자가 주요행위자로 많이 등장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 관료와 국가기관 중심의 주장이 철거민들의 입장이나 의견보다 앞서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의 편파보도 프레임은 주로 경찰·검찰과 한나라당이 주요행위자로 나타나, 『조선일보』는 정부 측 주장과 입장을 강조하여 전달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책임공방 프레임에서 실제적 당사자인 철거민의 주요행위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부상당한 철거민들이 화재발생을 밝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상에 대한 책임여부를 경찰·검찰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등 현실구성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6) 뉴스의 외연적 공정성이란, 언론이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개인, 집단, 세력은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큰 담론 권력을 차별적으로 누리는데, 언론이 여기에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담론 권력을 덜 누리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이준용, 2008).

넷째, 신문사별 프레임 구성분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세 신문사가 뉴스프레임을 통해서 특정한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조의 방향은 상반된 프레임 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같은 논조를 위해 주요행위자 역시 다르게 취사선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뉴스미디어가 프레임과 주요행위자의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 행위자는 국가기관인 경찰·검찰로서 용산참사와 관련한 당사자 이면서 수사주체 집단이 주요행위자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임별로는 원인과 배경이 없는 사건중심의 단순전달과 편파보도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나 경찰과 검찰의 주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량 자체가 적은 진실규명 프레임은 이 신문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둘러싼 경찰·검찰과 철거민 양측 간의 갈등해소의 대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보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대상 신문들은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해결책보다는 경찰·검찰,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간의 대립과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본질적인 사안인 도시정비와 개발과 관련된 법제정비 문제점⁷⁾으로 인한 철거지역 세입자들의 보상체계의 난맥상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신문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왜 그러한 이슈가 발생했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여론을 보도하기보다는 정부 관료인 경찰·검찰과 여당인 한나라당 중심적 보도 자료에 의존하여 사건중심의 정보전달 위주의 기능주의적 역할만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대한 신문보도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요언론들은 철거민들이 땅루에 올라가야만 했던 근본적인 원인 등은 방치한 채, 단지 화재원인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대립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국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유가족의 주장과 요구보다는 경찰·검찰 등 정부 측 입장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는 등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엘리트 중심의 편향적인 보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유정, 2009).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언론은 단순히 상황적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또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한 피상적인 보도방식으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약자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용산참사 문제는 정치·사회적 이슈로서 이는 갈등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민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

7)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의 난맥상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의 참사와 관련이 깊다. 현재 도시정비 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뒤죽박죽이다. 이러한 복잡한 법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한겨레신문』, 2009. 1. 29, 4쪽).

8) 민연련 용산참사 언론보도 진단 토론회에서 이창현 국민대학교수는 용산참사에 대한 비평에서 언론은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서민 등 이 사건의 구조적 본질을 방치한 채 국가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의지한 보도를 이어가거나, 철거민들이 골프공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지엽적 문제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 2009. 2. 3).

다. 따라서 신문을 포함한 언론이 사회적 계층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원의 다양성 결핍을 탈퇴하여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보도의 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 뉴스 틀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진 등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앙일간지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신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의 프레임을 통해 특정이슈 보도에 나타난 주요 프레임 기제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둠에 따라 왜 각 신문사가 그러한 틀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이러한 언론의 작업에 미치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데올로기 생산자들 간의 합의(含意) 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부족했다. 이상의 한계점을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갖춘 후속연구들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임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김동규 (2000). 사회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53~82.
- 김선남 (2002). 매체중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영기 (2002). 사회운동과 언론의 환경문제 구성하기. 『언론과 사회』, 11권 1호, 45~90.
- 김원용 · 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1.
- 김유정 (2009. 2. 3). 조중동과 KBS, 용산참사 책임자 은폐. 『미디어오늘』.
Availabl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09>
- 김정현 (2001).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35~75.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금 모드기 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138~163.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61~101.
- 송정민 (1992). 언론의 이념성 유지기제로서의 뉴스구성 원칙과 관행. 『한국언론학보』, 27호, 272~278.

- 송종길 · 이동훈 (2003).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3-1.
- 양문석 (2002). 『수용자 스키마가 미디어 프레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건호 (2008). 한미 신문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107~129.
- 이정환 (2010. 1. 5). 언론학자 10명 중 7명 언론자유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미디어오늘』, 5.
- 이준웅 (2002).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회』, 29호, 85~152.
- 이준웅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겨울호, 9~44.
- 이준웅 (2009). 뉴스 틀짓기 연구의 두 개의 뿔.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1호, 123~165.
- 이영표 (2007). 『갈등이슈에 대한 신문뉴스 프레임 연구: 전시 작전통제권 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정 · 김위근 (2004. 12. 15). 한국 신문의 이념지형 보수우세. 『미디어오늘』, Availabl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1>
- 정의철 · 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즈 위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정재철 (2001). 미국 대 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저녁9시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343~359.
- 한동섭 (2000). 일차규정자의 결정력과 미디어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권 2호, 215~245.

- Akiba, Adoni, & Bantz (1990). *Social conflict and television news*. Newbury Park, CA: Sage.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owler, R. (1991). *Language in the news*. London: Routledge.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 Ingalsbee, T. (1993). Earth first! Activism. *Social Perspective*, 39(2). 262~276.
- Iyengar, S. (1992).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chmidt, D. (1993).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of labor unions. *Journal of Labour Research*, 14(2), 151~164.

Touraine, A. (1988). *Return of the actor: Social theory in postindustrial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박홍수 (1995). 『메이킹 뉴스』. 서울: 나남.

최초 투고일 2009년 10월 01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4일

논문 수정일 2009년 11월 24일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f Social Disputes on the Selected Korean Dailies

: Focusing on the Youngsan Accident

Yangjune Im

Dept. of Mass Media & Political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news frames on the Youngsan Accident covered by the Korean elite newspapers. The accident took six lives and injured over 27 people in Youngsan, central Seoul, on January 2009. The news writings are analyzed focusing on the news frames stressed by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liberal *Hankyoreh Shinmun*, and moderate *Hankook Ilbo*.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news frame is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18.8%) of whom set the deadly fire on the observation tower, which is blamed between police authorities and the protesters each other. Moreover, the ratio of the news frame for simple reports(14.3%) and clarification of the truth(9.1%) are also very high. As major actors and interviewers throughout the news, the ratio of authorities, such as police, district attorney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surpass the protesters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us all dailies actively report the voices of authorities speaking for the government, rather than social weakers, the protesters who lost their family members in Youngsan accident. It is found that the press frames the protesters and civic organizations as illegal and violent riot actors by focusing in the eyes of the social elite groups, such as a ruling governmental party, police and public prosecutors working for government.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press does not play a major role for a social mediator between conflict parties, but rather actively support in favor of the governmental elite groups in a social conflicts.

Key words : Yongsan Accident, Social disputes, News frame, Fair press, Social elite